

# 행복한 노후생활의 성별 차이

## -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

진 윤 아(Texas Tech University Health Sciences Center 연구원)

### I.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며, 2000년에는 고령화 사회인 동시에 인구 노년국 (aged population) 이 되었다.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2007).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여겨지던 노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의 노인연구가 주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의 성공적인 노화 (Rowe & Kahn, 1997)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간 가족과 친족에 의존해 생활해 왔으나, 가족부양자들의 가치관의 변화 (소가족화), 여성 취업, 가족해체 등의 부양능력의 감소로 가족 내에서 부양받기 힘든 상태를 직면하게 되었다 (양옥남 외, 2006). 특히, 여성노인은 평균수명이 남성노인에 비해 길어서 (남자 74.8세, 여자 81.5세), 노후를 배우자 없이 혼자 보내야 하는 기간이 약 20.5년으로 남성노인의 2배 (20.5년)에 이른다 (정순돌, 2000).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해왔기에, 배우자의 은퇴, 죽음에 의한 심각한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력이 없는 여성노인의 생활고와 노후대책의 부재는 남성노인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순기, 유영주, 1999; 정경희 외, 2005).

따라서 여성노인들이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기에는 남성노인들보다 불리하거나 소외된 위치에 있음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성별차이는 특별히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근래의 자녀세대의 부모부양기피현상 등으로 현세대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남성노인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여성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의 경제적 문제에 주목하고 남성노인과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순돌, 2000).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미치는 성별차이의 영향을 규명해내고자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 성공적 노화

Baltes & Baltes (1990)는 성공적인 노화의 기준으로서 수명,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능감, 사회적 유능성과 생산성, 통제감, 생활만족도를 제시하였으며, 근래의 성공적 노화는 Rowe

& Kahn (1997)이 제시한 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이론은 활동이론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세 가지 요인으로 성공적 노화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질병과 그에 관련한 장애가 적고, 신체 및 정신의 높은 기능의 유지, 그리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III. 분석

#### 1. 연구논문 선택

성별과 성공적인 노화와의 연계성을 다룬 연구로서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들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단, 연구들은 양적 척도를 사용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 2. 통계적 분석

문헌검색을 통하여 총 7개의 연구논문이 Meta-Win (Rosenberg, Adams, & Gurevitch, 2000) 프로그램을 이용한 메타분석에 이용되었다. 각 연구별로 효과크기 (effect size, Hedges' d)가 계산되었는데, 효과크기 (d statistic) 는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의 표준화된 척도로 .20이 이면 적은 효과크기를, .50정도면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80이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은 <표 1>에서 정리되었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연구들

연구	N	주요 변인들	척도
김영범, 이승훈 (2008)	843	학력, 주관적 안녕감	안녕감 척도 (PGCMS)
박군석 외 (2006)	1826	경제상태, 신체건강, 주관적 안녕감	안녕감 척도 (PGCMS)
윤현숙 외 (2008)	80	교육수준,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	안녕감 척도 (PGCMS)
정순돌 (2007)	527	주관적 경제평가, 성공적 노화	김미혜,신경림(2005)척도
하정연, 오윤자 (2003)	251	경제적 상황, 성공적 노화	SOC 척도
홍현방 (2002)	226	생활비, 학력, 성공적 노화	자아통합척도
홍현방 (2005)	231	용돈, 성공적 노화	자아통합척도

각각의 연구에서 도출된 효과크기는 각 연구의 표집 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가중 평균 효과크기 (weighted mean effect size)를 구하였다. 효과크기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도출된 가중 평균 효과크기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효과크기의 동질성검사가 Q statistic을 이용해 시행되었다 (표 2). 또한, 각 연구별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이 <그림 1> 에서 요약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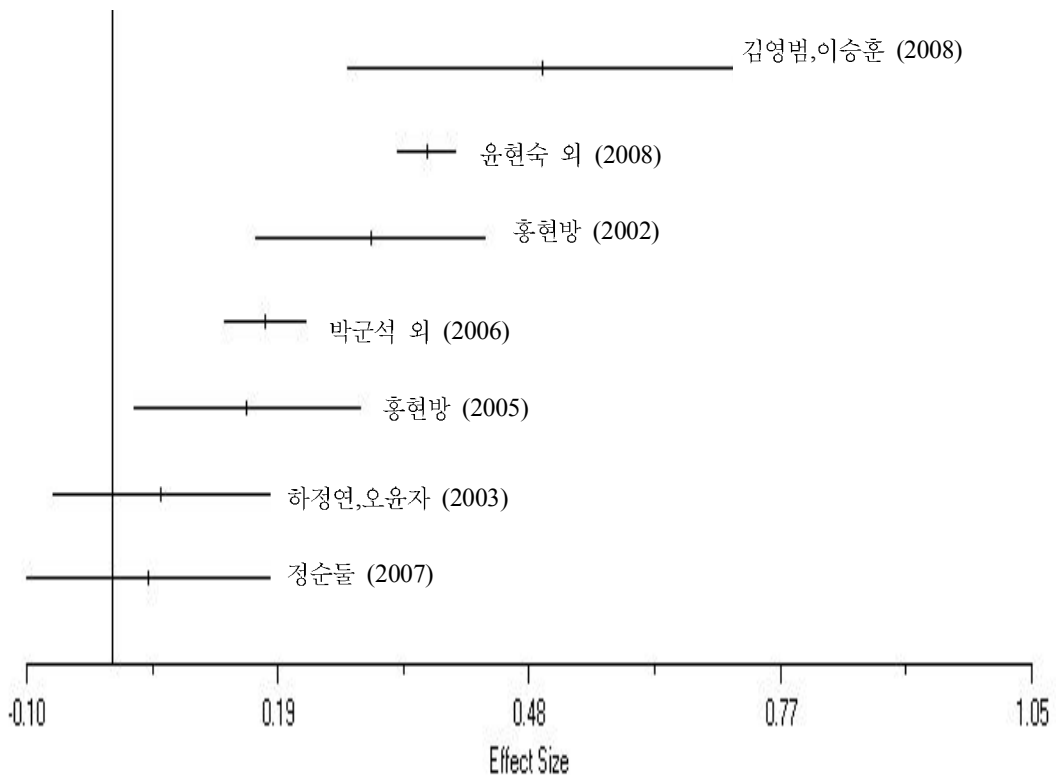
#### IV. 결과

성공적인 노후 생활점수의 평균 효과크기 (d)는 .609 로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남성노인의 평균점수가 여성노인의 점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2의 요약을 보면, 동질성검사 (Q statistic)에서 유의한 결과가 보고되는데, 이는 본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 간에 일정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예로 정순돌 (2007)의 연구의 경우, 성공적인 노후에 있어 남녀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연구결과와 불일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 특성 (매개변수)의 규명이 있어야 하겠다.

<표 2> 성별과 성공적인 노후 생활간의 효과크기

Weighted Mean Effect Size	95% Confidence Interval	Homogeneity Q
0.609	0.583 to 0.634***	3442.968***

\*p<.05; \*\* p<.01.; \*\*\* p<.001.



<그림 1> 각 연구별 성별과 성공적인 노후 생활간의 효과크기와 신뢰구간

## [참고문헌]

(메타분석에 이용된 연구논문은 \* 로 표시하였다)

- \*김영범 · 이승훈 (2008).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서울 및 춘천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28, 1-18.
- \*박군석 · 한덕웅 · 이주일 (2006).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공노화 노인들의 사회심리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11, 457-475.
- 양옥남 · 김혜경 · 김미숙 · 정순돌 (2006). 노인복지론, 도서출판 공동체
- \*윤현숙 · 유희정 · 이주일 · 김동현 · 김영범 · 박군석 · 유경 · 장슬랑 (2008). 인생의 보람과 후회: 성공적 노화여부에 따른 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5-35.
- \*정순돌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7, 829-845.
- \*하정연 · 오윤자 (2005).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 적정화, 보상책략 관련 변인 연구: 중산층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 \*홍현방 (2005).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 \*홍현방 (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22, 245-259.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 Adams, D. C., & Gurevitch, J. (2000). *Meta Win: Statistical software for meta-analysis (Version 2.0)*. Sunderland, MA: Sinauer Associates.
- Rowe, J., & Kahn, R.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 행복한 노후생활의 성별 차이: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권 영 인(경희대 강사)

우선 노인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라고 평가된다. 특히 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무게를 두고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의 성별차이를 고찰한 것이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다.

보다 완성도 있는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론에서 여성이 성공적 노화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주된 이유로 경제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간단한 정의 부분에서는 경제력을 고려한 정의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노인의 경제력이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경제력 외에도 성공적 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총 7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논문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더 많은 수의 논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연구 간의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보다 많은 수의 연구를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개 변수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를 고려한 논문들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외국에서도 유사한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으며, 외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과 한국 연구들을 비교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한다.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의 성공적 노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를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